

헤르만 바빙크의 은혜언약론 : 그리스도의 머리되심 중심으로

정찬도
(사상교회)

[초록]

바빙크가 은혜언약을 화해와 구원의 필요성 관점에서 논한다. 그는 이 논의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되심을 강조하고, 세 가지 요소로 설명한다. 첫째, 그리스도는 택자들과 유기적 관계성을 가지고, 택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유기적 연합 안에서 구원의 유익을 누리게 된다. 둘째, 그리스도는 은혜언약의 머리이며, 실질적 언약 당사자는 머리되신 그리스도 자신이다. 셋째, 그리스도는 택자들의 머리이며 또한 모든 인류를 대표하신다. 교회와의 완전한 유기체이신 신비적 그리스도가 선택의 참된 대상이다.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개념은 은혜언약, 구속언약, 그리고 선택에 대한 논의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되심 개념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비참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유일한 중보자 되심이 그의 언약론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논문투고일 2016.12.10. / 수정투고일 2017.01.03. / 게재확정일 2017.01.09.

키워드: 바빙크, 은혜언약, 구속협약, 선택, 그리스도

I. 서론

교회사에서 언약 교리는 교부들의 주석에서 종종 등장한다. 교부들은 언약 교리를 다룰 때 영지주의에 대항하여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을 변호하였고, 유대주의에 대항하여 신구약 성경의 차별성을 주장하였다. 종교개혁 시기의 언약교리는 츠빙글리와 재세례파들 사이의 유아세례 논쟁으로부터 다시금 불거지기 시작하였고, 이후 칼빈과 다른 개혁자들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으며, 17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개혁신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획득하게 되었다.¹

헤르만 바빙크는 개혁신학과 개혁주의 신앙고백들은 은혜언약 없이는 결코 이해될 수 없으며, 은혜언약에 대한 이해가 개혁신학과 신조의 중심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말한다.² 우병훈은 바빙크 신학에서 언약이란 예정이 실현되는 방식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유기체적 삶이 바로 예정이 언약의 옷을 입고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라 말한다.³ 우병훈은 바빙크의 은혜언약을 예정론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면, 김창원은 바빙크의 언약신학을 그의 구원론 이해에 풍취를 더했음을 잘 지적하였다.⁴ 바빙크는 개혁교의학에서 은혜언약 교리를 기독교론 앞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는 은혜언약을 죄, 비참, 그리고 죽음의 실재에 대한 화해와 구원의 보편적 욕구 개념으로 시작하기 때문이다.⁵ 즉 기독교론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논하기 전 구원의 필요성을 은혜언약으로부터 출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1 Herman 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2e dr. (Kampen: Kok, 1906-1911), III:251-59. 이후로 *GD*라 표기하겠다. Cf. Johannes Coccejus, *De leer van het verbond en het testament van God*, trans. W.J. van Asselt and H.G. Renger (Kampen: De Groot-Goudriaan, 1990) 코케이우스는 칼빈과 후기 개혁신학자들 사이의 언약론과 관련하여 교리-역사적 의의를 주장하였다.

2 *GD* III:190; Herman Bavinck, *Roeping en wedergeboorte* (Kampen: Zalsman, 1903), 92-93.

3 우병훈, “칼빈과 바빙크에게 있어서 예정론과 언약론의 관계,” *KRJ* 26 (2013), 297-331.

4 김창원, “헤르만 바빙크의 언약 신학에 대한 연구,” 백석대학교 기독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326.

5 *GD* III:175.

필자는 은혜언약론을 기독교론의 관점에서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첫째 바빙크의 은혜언약에서 그리스도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둘째 은혜언약과 구속언약의 관계는 어떠한 특징과 의의를 지니는지, 셋째 은혜언약의 특징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II. 은혜언약과 구속언약(*Pactum salutis*)

먼저 바빙크 신학에서 은혜언약의 개괄적 의미를 살펴보자. 타락 전 하나님께선 인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행위언약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고, 타락 후에는 은혜언약에 의해 그의 택자들에게 영생을 베푸는 사랑의 아버지로서 관계하셨다. 은혜언약은 첫 인간 아담이 행위언약 안에 있는 복 획득에 실패함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새롭고 더 나은 방편으로 세우신 것이다. 이 복음적 언약은 하나님의 자비와 약속에 기초한다.⁶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인류의 죄와 사망이 나오고, 그리스도요, 언약의 중보자요, 그리고 새로운 인류의 머리이신 둘째 아담으로부터 인류의 의와 생명이 나온다.⁷

바빙크는 은혜언약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혹은 하나님과 깨어진 교제인 첫 아담의 타락한 순간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그는 이 관계와 교제의 회복은 역사적 행위와 언약의 형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⁸ 그러므로 이 언약은 참된 종교의 본질로써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계획하신 그 길로 안내한다.⁹ 바빙크는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 사역 즉 신적 계시의 핵심 내용을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언약과 약속 안에 두고 있다.¹⁰

6 GD III:206.

7 GD III:208.

8 GD III:176.

9 GD III:210.

10 A.A. Hoekema, "Herman Bavinck's doctrine of the covenant" (Th.D. Diss.,

바빙크는 그의 은혜언약 교리를 논할 때 구속언약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룬다. 바빙크는 시간 안의 은혜언약의 영원한 토대를 하나님의 작정과 구속언약으로 이해한다.¹¹ 구속언약은 영원으로부터 삼위하나님께서 구원사역에 관하여 맺으신 언약이다.¹² 바빙크는 말하기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은 그 둘 사이의 무한한 격차로 인해 언제나 다소 주권적 결정, 유언 *διαθηκη*의 성격을 지닌 반면, 여기 삼위 사이의 언약은 온전한 의미에서 언약 *συνθηκη* 이다”고 한다.¹³ 구속언약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근거한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관련한 삼위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로 삼위의 언약적 관계와 언약의 삶을 보여주며, 구속언약은 은혜언약의 영원한 배경을 형성한다.¹⁴

바빙크는 구속언약이 “흠 있는 형태”를 가진다 할지라도, 바르트가 지적 하듯이 이원론(Dualism)과 삼신론(Tritheism)적 경향이라기보다는 성경적 근거에서 나온 개념으로 이해한다.¹⁵ 바빙크가 이해하는 구속언약은 삼위 하나님의 각위의 구분에 의한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과 자비가 구원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보여주는 개념이다.

특별히 바빙크는 구속언약과 은혜언약의 차이점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논한다. 전자에서 그리스도는 보증인이요 머리이며 대속의 사역을 통한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1953), 111.

11 *GD* III:192.

12 Hoekema, “Herman Bavinck’s doctrine of the covenant,” 103-4: “We may say, then, by way of definition, that the pactum salutis or covenant of redemption in Bavinck’s theology refers to the covenant made from eternity between the three Persons of the Holy Trinity, in which salvation of God’s people was planned, and in which each Person pledged Himself to carry out His particular role in the execution of that plan of salvation.”

13 *GD* III:194. 헤르만 바빙크, 『개혁교의학』, 박태현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1), III:261-2. 이후 한글 번역 참조는 『개혁교의학』, 페이지로 표기하겠다.

14 참고. 리치 러스크(Rich Lusk)와 제임스 조르단(James Jordan), 랄프 스미스(Ralph Smith)와 같은 신학자들은 언약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론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 보라. J. V. Fesko, “The Federal Vision and the Covenant of Works,” *Lecture for the Meeting of the Stated Clerks of the PCA* (3 Dec. 2004).

15 *GD* III:194.

구원의 획득인 반면 후자에서는 오직 중보자요 구원의 적용을 말한다.¹⁶ 하지만 바빙크는 은혜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구속언약과 관계시켜 말하고 있다.¹⁷ 그 이유는 은혜언약이 영원으로 이동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만들어지기 때문에 은혜언약과 구속언약의 구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바빙크는 은혜언약과 구속언약을 동일시함과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은혜언약과 구속언약의 머리이심을 주장한다.¹⁸

바빙크는 두 언약의 관계성을 구속언약에 그 중점을 둔다. 바빙크는 구속언약을 시간 속에서 은혜언약의 영원한 원형으로 보는 이유는 구속언약은 삼위하나님 안에서 영원부터 존재하며 은혜언약은 시간 안에서 역사적 함의를 가지기 때문이다. 바빙크는 명료하게 은혜언약과 구속언약을 구별할 뿐 아니라 두 언약의 긴밀한 관계성과 연합 또한 간과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¹⁹ 구속언약은 은혜언약의 견고하고, 확실하며, 변하지 않는 근거이다. 은혜언약이 시간 안에 계시되었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집중된다면, 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과의 영원한 약속 안에서 희생제사를 통해 은혜언약을 성취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은혜언약은 삼위하나님의 영원한 함의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바빙크는 말하기를 “은혜언약은 영원 전부터 삼위의 구원언약 가운데 마련되어 있었고 타락 후에

16 GD III:208. 『개혁교의학』, III:278.

17 GD III:208-09. 바빙크는 Rollock, Preston, Blake, Comrie, Brahe, 그리고 the Longer Westminster Catechism이 두 언약의 일치를 견지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안토니 후쿠마(Antonie Hoekema)는 바빙크가 은혜언약과 구속언약의 차이점을 특별히 강조하지만, R. H. 브렘머(R. H. Bremmer)는 두 언약의 일치를 잘 드러낸다. 보라 Hoekema, “Herman Bavinck’s doctrine of the covenant,” 109; R. H. Bremmer, *Herman Bavinck als dogmaticus* (Kampen: Kok, 1961), 247-48. 참조. Jacob Jan van der Schuit, *Het verbond der verlossing : antwoord op de vraag: twee of drie verbonden?* Apeldoornse studies no. 18 (Kampen: Kok, 1982), 23-24; Bertus Loonstra, *Verkiezing, verzoening, verbond : beschrijving en beoordeling van de leer van het pactum salutis in de gereformeerde theologie* (s-Gravenhage: Boekencentrum, 1990), 296.

18 GD III:208-10.

19 GD III:209. Hoekema, “Herman Bavinck’s doctrine of the covenant”, 107: “구원 계획 속 하나님의 영원한 사역과 시간 속 하나님의 사역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다.”

곧바로 그리스도에 의해 실현되었다”고 한다.²⁰ 또한 언약의 시종은 그리스도에게 위탁되어 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확고히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산은 그리스도 자신이 획득한 은덕들이다.²¹ 결론적으로 바빙크는 은혜언약은 구속언약으로부터 나오며, 은혜언약은 구속언약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된다고 한다.

필자는 바빙크의 은혜언약과 구속언약의 구별성과 통일성에 대한 논의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해무는 바빙크가 은혜언약과 구속언약을 일치시키려는 그릇된 시도를 하였고, 이로 인해 그의 언약론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²² 이에 이승구는 바빙크가 이 두 언약의 차별성에 강조점을 두며 유해무의 지적을 재고할 것을 권하였다.²³ 이 두 상반된 견해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다음 두 가지로 말하고자 한다.

첫째, 바빙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은혜언약의 머리이심과 동시에 중보자요, 보증자요, 둘째 아담이요, 대표자이심을 분명히 말한다.²⁴ 김창원은 구속 언약에서 그리스도는 언약의 머리로, 은혜 언약에서는 언약의 중보자로 활동하셨다고 정리하여 말한다.²⁵ 하지만 바빙크는 그리스도께서 은혜언약의 머리시며 당사자일 뿐 아니라 구속언약의 머리이며, 타락 이후에도 인류의 머리와 대표자로서 섬기셨음을 말한다.²⁶ 물론 바빙크가 은혜언약과 구속언약을 구분할 때 그리스도의 머리되심을 후자에만 언급하는 이유는, 구속언약이 구원의 획득과 영원성 개념인 반면에 은혜언약은 구원의 적용과 역사성 개념으로 구분 짓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바빙크의 설명은 은혜언약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되심에 대한 본인의 주장과 상충되

20 *GD* III:195. 『개혁교의학』, III:262.

21 *GD* III:209.

22 유해무, 『헤르만 바빙크』 (파주: 살림출판사, 2004), 195-6.

23 이승구, “헤르만 바빙크의 언약사상”, 『교회와 문화』 31(2013), 26.

24 *GD* III:209.

25 김창원, “헤르만 바빙크의 언약 신학에 대한 연구,”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329.

26 *GD* III:211.

며, 은혜언약과 구속언약의 구별됨과 동시에 일치성에 대한 주석적 근거가 다소 부족해 보인다.

둘째, 바빙크는 은혜언약과 구속언약의 일치성의 관점에서 은혜언약이 영원으로 이동하여 구속언약과의 구분이 사라짐을 말하고,²⁷ 차별성의 관점에서 은혜언약은 여전히 시간 속에 남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바빙크는 은혜언약이 첫 아담의 행위언약의 실패한 순간부터 바로 시작되었기에, 은혜언약을 역사적으로 행위언약 뒤에 위치시킨다. 비록 바빙크는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관계성과 행동하는 당사자인 신비적 그리스도로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 할지라도, 영원으로 옮겨진 은혜언약의 개념은 여전히 행위언약과의 역사적 순서와 그리스도의 증보자 되심과 충돌을 피하기는 힘든 것 같다. 이와 같이 바빙크의 언약 교리에서 은혜언약과 구속언약의 구별됨과 일치성을 논할 때 두 가지 관점을 늘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치성과 차별성을 논하는 가운데,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추상적이며, 자신의 주장 안에서 상호 충돌이 일어나고 있으며, 논의가 정리되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음을 발견한다.

III. 은혜언약과 선택

바빙크는 선택 교리를 은혜언약 속에서 관련 지어 설명하는데, 이 선택 교리에서도 바빙크는 그리스도의 머리되심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특정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백성으로 여기기 위한 하나님의 행위이다.²⁸ 선택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행위로 인간의

27 GD III:208.

28 GD III:212. Herman Bavinck, *Magnalia Dei : Onderwijzing in De Christelijke Religie Naar Gereformeerde Belijdenis* (Kampen: Kok, 1909), 249: 바빙크는 선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dat is dat genadig voornemen Gods, waarnaar Hij degenen, die Hij in liefde te voren gekend heeft, ook te voren verordineerd heeft den beelde zijns Zoons gelijkvormig te zijn, Rom. 8:29.”

노력 혹은 일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그의 기뻐하시는 뜻에 의한다.

택자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유기체를 형성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참여한다.²⁹ 그들은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되는데,³⁰ 이는 선택이 바로 그리스도의 선택 안에 유기적 참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³¹ 더하여, 그리스도는 선택의 원인 혹은 근거이며, 선택의 목적인 구원의 유효한 원인이 된다.³²

바빙크는 선택 교리를 몇 가지로 특징 짓는다.³³ 첫째,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혹은 기뻐하시는 뜻의 표현이다. 여기엔 인간적 요소가 전혀 없으며, 믿음의 원인과 이유이지 결과가 아니다. 둘째, 선택의 실질적 대상은 교회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이다. 바빙크는 교회의 선택됨이 교회의 첫 번째 복이며, 이 복은 그리스도와와의 연합 안에서 주어진다 말한다. 그리스도의 선택은 논리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우선하지만,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신비적 그리스도가 선택의 실질적 대상으로 여긴다.³⁴ 셋째, 선택된 자들은 반드시 하나의 유기체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성령의 전이 된다. 이러한 유기체 이미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교회를 그의 몸으로 선택하셨다.³⁵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로 자라난다. 넷째, 선택은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의 작정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종말론적 의미가 있다.³⁶ 하나님의 작정 속의 모든 택자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29 *GD* II:366; III:212.

30 Bavinck, *Magnalia Dei*, 250.

31 Hans Burger, "Een eeuwigdurende verbondenheid," in G. Harinck and G.W. Neven, *Ontmoetingen met Herman Bavinck* (De Vuurbaak, 2006), 265-66.

32 Herman Bavinck, *The Doctrine of God*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51), 401-4.

33 *GD* II:362-69. Bavinck, *The Doctrine of God*, 406.

34 Bavinck, *The Doctrine of God*, 406.

35 *GD* II:368.

36 *GD* II:369.

모든 성도들이 다가 올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며 살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세워 나가기 때문이다. 그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유기체를 형성하며³⁷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참여하여, 영생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된다.

바빙크는 은혜언약과 선택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것은 선택과 매우 차이가 난다. 물론 이 둘의 차이는 선택이 특정한 반면 은혜 언약은 보편적이며, 전자는 자유의지를 부정하되 후자는 자유의지를 가르치거나 전제로 삼으며, 전자가 고백하는 바를 후자가 취소하는 그런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 둘의 차이점은 선택에서 인간이 전적으로 수동적인 반면, 은혜 언약에서는 능동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선택은 누가 선택되었으며 확실히 구원을 얻게 될 것인지를 단지 아무런 조건 없이 말할 뿐이다. 은혜 언약은 이러한 택자들이 그들의 목적지에 이르는 길을 묘사한다. 은혜 언약은 선택의 물줄기가 영원을 향해 진전해 가는 경로다.³⁸

바빙크는 은혜언약 안에 있는 유기적 요소를 설명하면서 은혜언약과 선택의 또 다른 차이점을 언급한다. 선택에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택자들과의 하나의 유기체를 형성한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반면, 은혜 언약에서는 아담과의 대조를 통해 보다 분명히 나타난다. 또한 선택이 개인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은혜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 관계가 있는 택자들 뿐 아니라 유기체의 구원에 집중한다. 그리스도의 유기체 개념 안에서 바빙크는 은혜언약과 창조질서를 연관시키고, 창조 전체를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포함시키는 “새로운 인류의 기관”으로 본다.³⁹ 즉 아담 안에 있는 신자들의 구조적 유기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37 GD III:230.

38 GD III:210. 『개혁교의학』, III:280.

39 GD III:212. 『개혁교의학』, III:282.

는 것이다.⁴⁰

바빙크는 은혜언약과 선택의 긴밀한 관계를 하나님의 작정으로부터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만약 은혜언약과 선택이 관계가 없다면, 은혜언약은 행위언약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을 것이다. 선택은 은혜언약의 선물이며 신자들에게 영생을 제공한다. 선택은 은혜언약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뿐 아니라, 근거, 보증, 심장, 그리고 핵심이다.⁴¹ 은혜언약 안에서 영원한 구원은 구원의 획득뿐 아니라 구원의 적용까지 의미한다. 영원으로부터 택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고, 그들은 언약 안에 포함되며,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복들에 참여자가 될 수 있다.

IV. 은혜언약의 특징들

1. 은혜언약은 삼위 하나님의 언약

바빙크가 그의 은혜언약을 구속언약과 선택과 함께 다루면서, 은혜언약에 대한 삼위일체론적 관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은혜언약의 관계를 살펴보자.

첫째, 은혜언약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인류와 은혜언약을 체결하셨고, 로고스와 성령을 통하여 은혜언약 안에 있는 모든 은사들을 제공하신다. 은혜언약은 인간의 공로와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다시 말해 은혜언약의 본질적인 성격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상실되었던 복들이 언약의 내용으로 삼는 데 있다.⁴² 은혜언약은 성부 하나님 자신에 의해 세워지고, 유지되고, 성취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놓여 있다.⁴³ 은혜언약이 깨어

40 Hoekema, "Herman Bavinck's Doctrine of the Covenant", 174.

41 Bavinck, *Magnalia Dei*, 303.

42 *GD* III:206.

43 Hoekema, "Herman Bavinck's doctrine of the covenant", 156.

지거나 파기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바빙크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엄숙한 맹세로 언약에 자신을 묶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한다.⁴⁴ 행위언약이 인간에게 달려 있었던 것에 반해, 은혜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할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그 확실성이 폐기될 수 없다.

둘째, 은혜언약은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은혜언약은 본질적으로 인간 혹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이다.⁴⁵ 여기서 바빙크는 은혜언약 안에서 그리스도가 신자들의 머리가 되심을 강조한다. 은혜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속죄와 순종(*satisfactio et obedientia*)의 요구를 아담 안에 있는 인류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류에게 하신다.⁴⁶ 그리스도는 은혜언약 안에서 중보자, 보증자, 둘째 아담, 그리고 대표자이다. 신자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언약의 교제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을 수 있다.⁴⁷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은혜언약은 확고히 이뤄진다.⁴⁸

셋째, 은혜언약은 성령의 사역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은혜언약 안에서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성자는 그의 희생제사를 통해 구원과 구원의 모든 복들을 성취하셨지만, 인간은 여전히 구원과 그로부터 흘러넘치는 복 밖에 거한다(*extra nos*). 성령이 반드시 개별적 인간들에게 그리스도가 객관적으로 성취한 은혜언약 안에 있는 복들을 주관적으로 신자에게 적용하신다.⁴⁹

이와 같이 은혜언약은 삼위하나님의 사역이다. 바빙크는 말하기를, “구원의 전체 사역을 함께 고안하고, 확정하고,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이는 오로지 삼위 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다”라 하였

44 GD III:184. 『개혁교의학』, III:248.

45 Hoekema, “Herman Bavinck’s doctrine of the covenant”, 156.

46 Hoekema, “Herman Bavinck’s doctrine of the covenant”, 156-7.

47 Bavinck, *Magnalia Dei*, 584.

48 GD III:209.

49 GD III:210-1.

다.⁵⁰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께서는 은혜언약 안에서 구원의 사역과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고, 성자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보증하시고 그의 희생제사를 통해 은혜언약의 일을 효과적으로 획득하시며, 성령은 신자들에게 객관적으로 획득한 은혜언약의 복들을 주관적으로 신자들에게 적용하신다.⁵¹ 바빙크는 은혜언약을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해한다.

2. 은혜언약은 편무적-쌍무적 언약

은혜언약 안에 주어진 약속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이다.⁵² 바빙크는 구약과 신약의 본질적 차이를 주장하는 코케이우스에 반하여 신구약 성경을 통해 나타난 은혜언약은 본질적으로 단일한 언약, 하나의 복음, 유일한 증보자, 하나의 믿음, 그리고 통일한 약속과 은덕을 말한다.⁵³ 바빙크는 신구약 성경의 통일성의 관점에서 두 언약의 공통적 요소를 말한다.⁵⁴ 구약의 언약의 핵심 메시지가 신약에 전달되고,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자유롭게 맺은 이 은혜언약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보증이며 희망의 근거임을 말한다.⁵⁵ 이 약속은 율법의 성취뿐 아니라 증보자 되신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의 구원의 적용을 내포하고 있다.⁵⁶ 언약의 모든 복은 이 위대한 약속 안에서 이해된다.⁵⁷

첫째, 바빙크는 은혜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는 편무적 언약으로 여긴다. 은혜언약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구상하고, 하나님이 확정한다.⁵⁸ 은혜언약은 삼위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고, 유지되고, 성취되기

⁵⁰ GD III:195.

⁵¹ GD III:210-1.

⁵² GD III:201.

⁵³ GD III:209.

⁵⁴ GD III:204.

⁵⁵ GD III:180.

⁵⁶ Bavinck, *Magnalia Dei*, 305.

⁵⁷ Hoekema, “Herman Bavinck’s doctrine of the covenant”, 161.

에, 인간이 그 시작과 끝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사역이다. 은혜언약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맺어졌고 은혜언약의 확고함과 그 안에 있는 약속은 오직 하나님께 자리한다.⁵⁹

그러므로 은혜언약은 무조건적이다. 은혜언약에는 어떠한 요구나 조건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다. 은혜언약은 인간의 뜻과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뜻에 놓여있다. 믿음, 회개, 중생, 칭의, 그리고 성화는 언약의 조건들이 아니라, 은혜언약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복들이다.⁶⁰

둘째, 바빙크는 은혜언약을 쌍무적 언약으로도 여긴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간에 의해 수용되고 지켜지며, 하나님의 뜻은 은혜의 사역의 실현이 인간의 의식에 증거되고, 인간의 의지를 활동케 한다. 바빙크는 카톨릭, 루터파, 그리고 항변파와의 논쟁 가운데서 은혜언약 안에서 어떠한 요구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음을 분명히 말한다. 은혜 언약을 알리는 복음에는 요구도 없고 조건도 없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주기 때문이며, 그리스도께서 중생과 믿음과 회개를 포함한 모든 것을 성취했기 때문이다.⁶¹

하지만 바빙크는 은혜 언약의 시행에 있어서는 믿음과 회개의 요구와 함께 오는 것을 언급하기에, 이 관점에서 은혜언약을 조건적으로도 본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적용하시지만, 은혜언약은 우리가 죄 안에서 어떠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우리에게 조건적이고 요구적인 형식으로 다가 오기 때문이다.⁶² 은혜언약이 믿음과 회개를 요구하는 것은 언약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조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언약의 유익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⁶³ 이점에 있어서 이승구는 바빙크가 은혜언약을

58 GD III:183, 211.

59 GD III:184.

60 Hoekema, "Herman Bavinck's doctrine of the covenant", 169.

61 GD III:211. 『개혁교의학』, III:281.

62 GD III:212.

양편이 동등한 위치에서 맺은 협약(compact)이 아닌 하나님의 맹세(pledge), 즉 은혜언약을 편무적 강조점에서 이해했다는 것을 잘 드러내었다.⁶⁴ 바빙크는 은혜언약이 내포하고 있는 약속이 조건적이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며,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언약임을 강조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한다.⁶⁵

최근 ‘에스콘디도’(Escondido) 신학자들을 대표하는 메리디스 클라인(Meredith Kline)과 마이클 호튼(Michael S. Horton)은 편무적 언약 개념을 반대하고 있다.⁶⁶ 하지만 위의 내용에서와 같이 바빙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에서의 믿음의 요구는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획득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빙크는 이 모든 것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역임을 강조하여 말한다.⁶⁷ 그리하여 은혜언약은 무조건적이지만 조건적 형식으로 우리에게 다가 와 인간 전체를 재창조하여 회복된 자유와 의지 안에서 온 맘과 뜻을 다해 헌신토록 한다. 다시 말해, 만일 영생이 은혜와 선물이 아니라면, 은혜언약은 행위언약이 되고 은혜언약의 편무적이고 무조건적 의미는 상실될 것이다.

3. 은혜언약은 불변하고 확실한 언약

바빙크는 은혜언약을 행위언약과의 대조하여 서술한다. 행위언약은 타락하지 않은 자들에게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면 은혜언약은 타락한 인간들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다.⁶⁸ 인간의 자유의지의 연습에 의존하기에 불확실

63 Hoekema, “Herman Bavinck’s doctrine of the covenant”, 170: “The covenant of grace precedes faith. Faith is not a condition [for entrance] into the covenant, but [a condition] in the covenant”

64 이승구, “헤르만 바빙크의 언약사상”, 17-18.

65 Bavinck, *Magnalia Dei*, 305.

66 김창원, “헤르만 바빙크의 언약 신학에 대한 연구”, 210-8. 참고: Meredith G. Kline, *The Treaty of the Great King* (Grand Rapids: Eerdmans, 1963); J. S. Montgomery, J. Shishko, and B. Macedo, “Kline, Horton, and the Mosaic Covenant”, *Christ and Salvation*, 41 (Fall 2010); Michael Horton, *God of Promise: Introducing Covenant Theology* (Grand Rapids: BakerBooks, 2006).

67 *GD* III:198-9.

한 행위언약은 삼위하나님의 확실하고, 불변하며, 영원한 사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행위언약 안에서의 첫 아담은 은혜언약 안에서 둘째 아담에게 회복되기에, 은혜언약은 행위언약의 회복과 실현이라 할 수 있다.⁶⁹

롤프 H. 브렘머(Rolf H. Bremmer, 1917-95)는 바빙크가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의 본질적 차이를 대조의 방법으로 드러내는 것을 강조하였지만, 바빙크는 두 언약의 공통점 역시 간과하지 않는다.⁷⁰ 은혜언약과 행위언약은 동일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는데, 언약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 돌리는 것이다.⁷¹ 그 핵심 내용은 온 창조물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은혜언약 안에서 영생을 인간에게 주도록 굳게 서약하셨다.⁷²

바빙크는 또한 그의 기독교론의 첫 장인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은혜언약이 행위언약과 구별되는 점은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 되게 하며 화해시키고 회복시키는 중보자가 있음을 말한다.⁷³ 은혜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와 성령을 통해 오직 하나님에 의해 확실케 된다. 하지만 바빙크는 기독교론적 관점에서 은혜언약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 수립된 행위언약이었다는 통찰을 제공한다.⁷⁴

V. 은혜언약과 그리스도의 머리되심

바빙크는 은혜언약을 화해와 구원의 필요성에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두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머리되심을 강조한다. 바빙크는 그리스도가 은혜

68 GD III:204.

69 Hoekema, “Herman Bavinck’s doctrine of the covenant”, 99.

70 Bremmer, *Herman Bavinck als dogmaticus*, 248.

71 Bavinck, *Magnalia Dei*, 305.

72 Hoekema, “Herman Bavinck’s doctrine of the covenant”, 115.

73 GD III:215.

74 GD III:208.

언약 안에서 온 인류의 머리이신 둘째 아담이 된다.⁷⁵ 그리스도의 머리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그리스도는 유기적 관계성을 가진다. 바빙크는 우리가 은혜언약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행위언약의 머리인 아담과 유기적 연합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바빙크는 이 “유기적”이란 개념을 다양하게 사용하지만, 그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진 않는다.⁷⁶

바빙크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유기체 개념에서 비교 및 대조를 통해 그리스도의 머리되심을 보다 분명히 나타낸다. 바빙크는 아담을 전 인류를 대표 하며, 옛 사람의 아버지요 머리요, 행위언약의 머리와 유기체로 여긴다. 그리스도의 머리되심과 유기적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이들은 말살 되거나 파괴되지 않는다.⁷⁷ 아담과 다른 인류와의 관계성은 혈육에 근거한 유기적 연합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법정적 관계성도 포함한다.⁷⁸ 다시 말해, 모든 인류는 행위 언약 안에서 아담과의 육체적 관계 성에서 기원하지만 윤리적-법정적 관계성을 동일하게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언약의 증보자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육신하셔야만 했다.⁷⁹

75 *GD* I:351: “De mensheid is niet een aggregaat van individuen, maar een organisch geheel, waarin allen leven van elkaar.”

76 Jan Veenhof, *Revelatie en inspiratie* (Amsterdam: Buijten & Schipperheijn, 1968), 267-68. 페인호프는 바빙크의 유기적 개념은 켈링의 관념 철학, 종교사학과, 그리고 율리신학자들로부터 전수받은 것이라 결론짓는다. 바빙크는 카이퍼와 함께 “유기체”와 “유기적” 개념을 시간의 우주적 의미에서 사용한다. Sydney Jacob Hielema, “Herman Bavinck’s Eschatological Understanding of Redemption” (Th. D. Wycliffe College, 1998), 83-84. “유기적”이란 개념은 다음의 특징을 내포한다. 첫째, 이 개념은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보여주는 관계를 나타낸다. 둘째, 이 개념은 죄에 의해 깨어진 관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화해된 관계를 나타낸다. 셋째, 이 관계들은 어떤 측면에 있어서 숨겨졌고 신비롭다. 넷째, 이 개념은 하나의 실체가 그 자신의 내재적 가치를 지닌채 다른 실체들과 하나의 기관으로써 섭길 수 있음을 나타낸다.

77 *GD* III:210.

78 *GD* II:540-1, 548-50, III:80-84; Hans Burger, *Being in Christ* (Eugene, Oregon: Wipf & Stock, 2008), 94.

79 *GD* III:210-1.

아담과의 유기적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죽었고, 또한 그리스도와의 유기적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아 생명을 누리게 된다. 유기적 연합의 결과로써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고 택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인성의 유기적 연합 없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없다.⁸⁰ 그리스도와의 유기적 연합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구원과 그의 순종하심으로 인한 유익을 누리게 된다.

둘째, 그리스도는 은혜언약의 머리시다.⁸¹ 바빙크는 말하기를, “은혜 언약은 물론 그리스도와 체결되었으나, 또한 그리스도를 넘어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까지 확대 되고 영육 간에 이들 모두를 포함한다”고 한다.⁸² 그렇기 때문에 바빙크는 은혜언약은 실질적으로 그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맺어진 언약임을 강조한다.⁸³ 즉 바빙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의 유기적 연합 개념 안에서 실질적 언약 당사자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다.⁸⁴

셋째, 그리스도는 선택에서 택자들의 머리시다. 선택 교리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는 유기체의 구성원이자 머리로서 택자들의 머리로 택함 받으셨다.⁸⁵ 바빙크는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머리로서 인류를 대표하실 뿐 아니라 택자들과 유기적 관계를 가지시며, 신비적 그리스도가 선택의 참된 대상이라 말한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특정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백성으로

80 Burger, *Being in Christ*, 95: “인성의 유기적 연합 없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없다. 왜냐하면 행위언약의 머리로서 아담과 은혜언약의 머리로서 그리스도 사이에는 대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81 *GD* III:210.

82 *GD* III:211. 『개혁교의학』, III:280.

83 Hoekema, “Herman Bavinck’s doctrine of the covenant”, 156. Cf. Schuit, *Het verbond der verlossing : antwoord op de vraag: twee of drie verbonden?* 14.

84 *GD* III:210. 우병훈은 바빙크 신학에서 은혜언약의 당사자를 “신자와 그의 자녀들”로 보며, 신약의 성도들이 맺은 언약이 진정한 은혜언약임을 강조한다. 우병훈, “칼빈과 바빙크에게 있어서 예정론과 언약론의 관계,” 313-8.

85 Burger, *Being in Christ*, 98; *GD* III:228-32.

여기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다.⁸⁶ 그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유기체를 형성하며⁸⁷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참여한다.⁸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 예정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선택이 신자들의 선택보다 우선한다고 본다. 선택의 대상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인 교회로 구성된 완전한 유기체이다. 그들은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되는데, 이는 선택이 바로 그리스도의 선택 안에 유기적 참여이기 때문이다.⁸⁹

VI. 결론

바빙크는 그의 『개혁교의학』에서 은혜언약론을 기독교론 앞에서 논하면서 죄와 비참 그리고 죽음의 실재로부터의 구원의 필요성을 은혜언약으로부터 출발시킨다. 필자는 은혜언약론을 기독교론의 관점에서 논하면서, 바빙크의 은혜언약론에서 그리스도가 가지는 의미, 구속언약의 의미, 그리고 특징을 살펴보았다. 바빙크는 그의 은혜언약을 구속언약과 선택과 함께 논하면서 그리스도의 머리되심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잘 드러낸다. 머리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비참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유일한 중보자되심이 그의 언약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86 *GD* III:212.

87 *GD* III:230.

88 *GD* II:366; III:212.

89 Burger, "Een eeuwighdurende verbondenheid", 265-6.

[Abstract]

The Doctrine of Covenant of Grace in Herman Bavinck's Theology: with Emphasis on Christ as Head

Chan Do Chung (Sasang Church)

Bavinck discusses the covenant of grace in a perspective of the necessity of reconciliation and redemption. He emphasizes Christ as head in this issue, and describes it in three points. First, Christ has an organic relationship with the elect who can take the benefit of redemption in the organic union with Christ. Second, Christ is the head of the covenant of grace in which Christ as head is the real covenant party. Third, Christ is the head of the elect and also represents the whole humankind. The mystic Christ, the perfect organism with Church, is the real object of election. The concept of Christ as head plays a crucial role in his argument of the covenant of grace, the covenant of redemption, and election. The concept of Christ as head, the only Mediator who delivers us from the sin and misery, is a key concept to understand the doctrine of covenant in Bavinck's theology.

Key Words: Bavinck, The Covenant of Grace, Pactum Salutis, Election, Christ

[참고문헌]

- Bavinck, Herman. *The Doctrine of God*.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51.
- _____. *Magnalia Dei : Onderwijzing in De Christelijke Religie Naar Gereformeerde Belijdenis*. Kampen: Kok, 1909.
- _____. *Roeping En Wedergeboorte*. Kampen: Zalsman, 1903.
- Bremmer, R. H. *Herman Bavinck Als Dogmaticus*. Kampen: Kok, 1961.
- Burger, Hans. *Being in Christ*. Eugene, Oregon: Wipf & Stock, 2008.
- Coccejus, Johannes. *De Leer Van Het Verbond En Het Testament Van God*. trans. W.J. van Asselt and H.G. Renger. Kampen: De Groot-Goudriaan, 1990.
- Fesko, J. V. *Lecture for the Meeting of the Stated Clerks of the PCA*. 2004.
- Harinck, G., and Neven, G.W. *Ontmoetingen Met Herman Bavinck*. De Vuurbaak, 2006.
- Hielema, Sydney Jacob. "Herman Bavinck's Eschatological Understanding of Redemption." Wycliffe College, 1998.
- Hoekema, A.A. *Herman Bavinck's Doctrine of the Covenant*. Th.D. Diss..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1953.
- Kline, Meredith G. *The Treaty of the Great King*. Grand Rapids: Eerdmans, 1963.
- Loonstra, Bertus. *Verkiezing, Verzoening, Verbond : Beschrijving En Beoordeling Van De Leer Van Het Pactum Salutis in De Gereformeerde Theologie*. 's-Gravenhage: Boekencentrum, 1990.

Schuit, Jacob Jan van der. *Het Verbond Der Verlossing : Antwoord Op De Vraag: Twee of Drie Verbonden?* Apeldoornse Studies No. 18. Kampen: Kok, 1982.

Veenhof, Jan. *Revelatie En Inspiratie*. Amsterdam: Buijten & Schipperheijn, 1968.

김창원. “헤르만 바빙크의 언약 신학에 대한 연구”. 백석대학교 기독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바빙크, 헤르만. 『개혁교의학』. 박태현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1.

유해무. 『헤르만 바빙크』. 파주: 살림출판사, 2004.

이승구. “헤르만 바빙크의 언약사상” 『교회와 문화』 31 (2013).